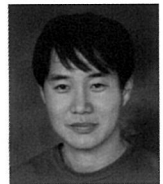




우리 사랑 우미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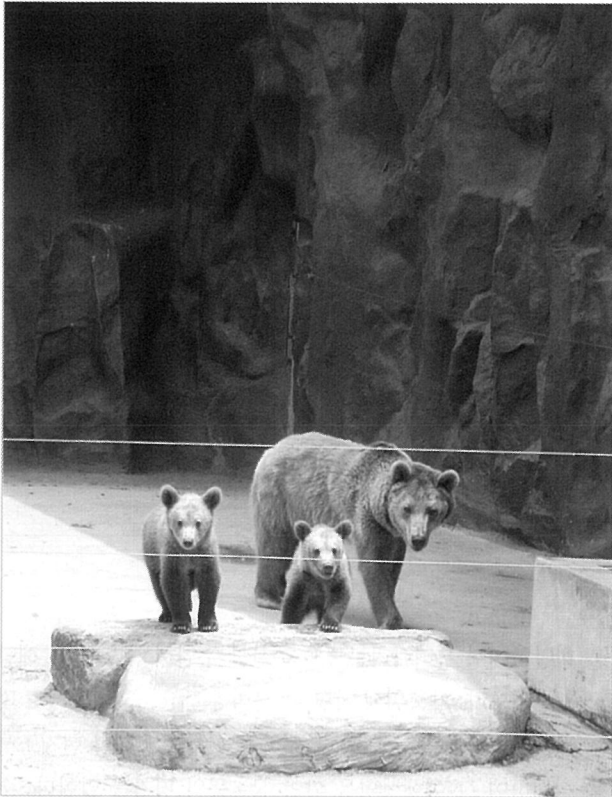
‘우미’는 아기 불곰의 이름이다. 우미가 우리 곁에 온 것은 정말 인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지난해 수컷 불곰이 5월 달에 그만 대장암으로 죽어버렸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보면 6, 7월경에 교미해서 11월에 지연 착상을 하여 1월에 새끼가 출산하는 곰의 생리상, 우미는 전혀 탄생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미와 그 형제들은 아빠 곰의 죽음을 예감한 마지막 소원이었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새끼 3마리가 탄생하였다.

그러자 이번엔 어미와 같이 있던 암컷 이모 곰이 나서서 아기 곰들을 자기가 차지하고 키우려했는지 그만 그들을 모두 유괴해 버렸다. 엄마가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벌어져 그 통에 새끼 두 마리가 그만 죽고 말았다. 일주일 만에 경사가 비극으로 바뀌어버린 순간이었다. 우미 역시 그 와중에 큰 상처를 입고 결국 오른쪽 뒷다리 발가락 두 개가 절단돼 나갔다. 우린 더 이상 우미를 그 위험한 불곰 우리에 둘 수가 없어 그 사건이 있는 후 다음 날 바로 곰 우리로 들어가 우미를 빼내왔다.

본래 곰들은 1월 중순 무렵 전국의 곰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3~4마리씩 새끼를 낳는다. 그건 야생에서 곰들이 겨울잠을 자는 시기와도 겹치는 때이다. - 동물원의 곰들은 겨울잠

을 자지 못한다. - 겨울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가 부족한 곰은 정말 손바닥 크기의 초미니 새끼를 낳고, 이 연약한 아기 곰들을 위해서 엄마는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새끼들이 젖 근처에 머물면서 힘차게 젖을 빨도록 배려한다. 그리고 새끼들은 급속히 자란다. 그리고 따뜻한 4월이 되어 어미를 뒤따라서 경충경충 뛰어날 때는 회색털이 온 몸을 덮고 거의 진땀 개 크기 정도로 자라나온다. 그 털들은 곰이 커감에 따라 다시 황갈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어미와 똑같은 진한 갈색으로 바뀌어 간다.

우미역시 처음 꺼낼 때는 눈도 못 뜨고 털도 하나도 없는 빨간 피부 그대로였다. 그렇지만 우유 빠는 힘 하나는 정말 대단했다. 하루에 4차례씩 공익요원(현재 사회복지요원)들과 내가 우유를 먹여 주었고 저녁에는 진료실 한 쪽에 따뜻한 잠자리(보온된 종이상자)를 마련해 주었다. 곰 새끼들은 비록 어미가 없더라도, 우유라도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약간의 사랑만 준다면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여. 우미도 제법 곰티가 나기 시작했다. 우유병을 들고 가면 어색하게 뒷발로 서서는 거의 빼앗다시피 하여 자기가 우유병을 붙들고 먹기 시작했다. 한 번에 한 병씩만 먹던 양도 어느 새 2병반을 주어도 모자랄 지경까지 되었다. 그걸 다 먹



으면 더 달라고 약을 ‘퍽퍽’ 지르고 빈 우유병을 놓지 않아, 물을 채운 우유병을 주고 나서야 빈 병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맹물이 든 병은 한참 빨다 맛이 없으면 그냥 바닥에 버려두었다.

먹는 것도 문제였지만 힘이 엄청나게 세지고, 발톱과 이빨이 자꾸 자라서 제 손에 닿지는 물건들은 온통 박살을 내버렸다. 우미가 선기로 손에 닿을 수 있는 물건들은 모두 치웠지만, 결국 신발들과 소파는 여전한 공격대상이

어서 아침에 멋모르고 벗어 놓은 신발이 다 찢어져 여러 사람의 비명 소리를 들어야 했고, 소파는 거의 숨이 다 빠져나와 결국 우미의 잠자리용도 이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

한번은 제 스스로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와, 바깥이 소란하기에 가 보았더니, 글썽 우미 주위에 관람객들이 빙 둘러싸고 우미를 구경하고 있었다. 우미는 그 가운데서 구르고 두발로 서서 걷고,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어른들 바지를 붙잡는 장난을 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었다. 우린 행여 아이들을 물지 않을까 - 우리도 많이 물렸었다. - 걱정되어 얼른 붙들어 오는데, 우미는 약을 쓰며 안 가겠다고 반항을 해 댔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우린 한사람씩 경호를 붙이고 우미를 가슴까지 묶는 개용 끈에 매달아 관람객들에게 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우미를 보고는 온통 우미 주위에만 몰려들어 사진을 찍고 신기해서 쳐다보고 장난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라 했다.

이렇게 지낸 4개월 무렵이 되자 이제 우미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말았다. 자기는 장난을 친다지만 당하는 우리는 온 몸에 밴드나 파스를 붙이고 다녀야 할 지경이었다. 또, 한 번 달아나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도저히 우리 걸음으로 따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무 사무실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통에 사무실 사람들은 우미가 나갈 때까지 모두 책상 위나 구석으로 내몰려 있어야 했다. 더 이상 이대로는 둘 수 없어 드디어 우리는 우미 엄마에게로 되돌려 주기로 결정했다. 엄마 곰에게 간 우미는 처음에 멀쩡잡치 떨어져 있더니 어미가 다가와 열심히 냄새를 맡고 훔아주니까 우미도 마음을 풀고 마침내 엄마 젖을 찾아 빨기 시작했다. 그 후 2~3일이 지나자 둘이는 더욱 가까워져서 야생에서 곰들이 하듯이 일광욕하기, 나무 타기, 목욕하기, 그리고 서서 걷기 등 곰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자세들을 하나

하나 가르치고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래도 우리가 다가가 살짝 부르면 어미를 버리고 철창 앞으로 달려와 우유를 달라는 듯 끝끝하며 혀를 치는 소리를 냈다. 결국 동물원에서는 그동안 키워준 가짜 엄마들과의 정을 끊기 위해 한 달간은 우미와 접촉한 사람은 절대로 곰 사 근처에도 못 가게 해야 했다. fin~ ♡

